

G331 국도를 ‘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’로 구축한다

성관광지주그룹유한책임회사 15 개 문화관광 프로젝트 중점적으로 실시키로

G331 국도는 <전국생태관광발전 계획 (2016 년—2025 년)>에서 제기 한 25 개 국가 생태풍경도로중 하나 인 동북 변경풍경도로이다. 일진, 길 림성 당위와 정부는 G331 연변 (沿边) 개방관광대통로 건설을 추진할 데 대해 ‘10 가지 행동’ 실시방안을 제 정했다. 이에 성 관광산업투자 플레 트홈인 길림성관광지주그룹유한책임 회사 (이하 ‘성관광지주그룹’)는 15 개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실시해 ‘교 통과 관광의 융합’을 중심으로 발전 시키기로 했다.

성관광지주그룹 당위 부서기이며 총경리인 류초는 다음과 같이 소개 했다.

“우리 성은 습근평 총서기의 흥변 부민에 관한 중요 문술과 새시대 동 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한 중 요 연설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락 착하고 G331 연변개방관광대통로 건 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보다 높은 품질, 보다 높 은 수준에서 변경촌의 변형발전을 힘 써 추진하기로 했다.” 우리 성 구간의 G331 국도는 집안시에서 시작돼 훈춘까지 총 1,211 킬로미터에 달한 다. 장백산을 핵심으로 굽이굽이 압 록강 및 두만강 류역을 따라 이어지

는 우리 성 변경촌은 가는 곳마다 풍 경을 이루고 있다. 성관광지주그룹에 서는 ‘점을 연결해 선을 이루고 구 슬을 꿰어 락을 이루는’ 개발 구상으 로 G331 연선에 대해 포함 15 개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기획, 설계하 여 연변개방관광대통로를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변 경관광 코스로 만들고져 한다.

‘풍격이 판이하고 특색이 선명하 며 서로 받쳐주고 협력 공유’하는 원 칩에 따라 성관광지주그룹은 전 단 계에 집안 태극만풍경구, 림강 파구 룡두산풍경구, 훈춘 권하례저관광 휴가구 3 개 대상을 선정해 도로건 설대상과 동시에 가동하고 같은 기 간에 건설하며 동시에 운영한다. 태 극만풍경구는 자연생태관광을 구축 하는 데 치중하고 캄핑가 숙영지, 온 천부락, 산기슭 오두막, 유람선 부 두 등 업태를, 파구룡두산풍경구는 향촌관광에 치중하고 물놀이 및 빙 설락원, 촬영관광, 특색농가락, 생 태농업 등 업태를, 권하례저관광휴 가구는 레저휴가에 치중하고 민속풍 정원, 해산물 특색료식, 통상구무 역, 공공모노레일 (单轨列车) 등 업태를 구축한다.

변경관광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

며 변경촌의 경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관광지주그룹은 ‘교통과 관광의 융합’이 중심으로 발전하도 록 적극 추동한다. 중앙기업과의 협 력, 지방 플랫폼의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G331 연선에 특속 ‘장 백망백조’ (长白望天鹅) 고산초원 생태목장, 화룡 선경대 국가풍경명 승구 등 일련의 문화관광 프로젝트 를 투자 건설하고 변경촌의 유휴 주 택을 활용하여 향촌 민박을 발전시 킨다. 이 기초에서 대형 중앙기업을 유지하여 변경촌의 랭수어, 식용균 등 양식과 가공업에 투자하게 하고 ‘교통, 문화, 관광, 농업, 전기’ 및 1, 2, 3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여 변경촌의 인구가 빨리 환류되게 하 고 인구 류출을 통제함으로써 변경 의 ‘공심촌’ (空心村)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해갈 방침이다.

현재 도로건설 전 단계 작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다. 류초는 “프로젝 트가 모두 건설되면 장백산을 핵심으 로, 압록강, 두만강을 두 날개로 15 개 문화관광 프로젝트 및 기존 풍경 구를 통합해 이루어진 ‘G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풍경도’는 관광객 접대량 300 만명 이상을 실현할 것이다.”라고 전망했다. / 길림일보

G331 길선에 숨겨진 연변의 ‘성세미안’



인민넷 - 길림채널은 일진 <G331 길선 (吉线)에 숨겨진 연변의 ‘성세미안’ (盛世美颜)>이라 는 제목으로 G331 국도가 연변조 선족자치주 경내의 변경지역을 이 어놓아 연변에 독특한 운치의 지역 풍정을 부여하고 있다고 사진으로 보도했다.

G331 길선 동단의 훈춘시에는 246 킬로미터의 변경선이 있다. 사 진 속 동남쪽은 로씨야의 프데고 르냐야 마을과 인접하고있고 서남쪽 은 강을 사이두고 조선의 두만강시 가 바라보이는 훈춘시 방천풍경구 이다. / 인민넷 - 길림채널

‘길자호’ 특색농산물 상해농업박람회서 인기

지난 주말 3일간 상해대국구매전시 센터에서 거행된 제 7 회 상해국제농 산물박람회에 우리 성 공급판매합작 사는 37 개 합작사기업, 농업 관련 기 업 및 전문합작사를 조직하여 전시회 에 참가, ‘길자호’ 특색농산물 공급판 매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.

전시회서 우리 성 공급판매합작사 는 장백산 전지를 주요 배경으로 통일 적으로 특색 전시부스를 만들고 자주 적 브랜드 제품, 진품, 금표 농산물 ‘공급판매 3 품’을 중점으로 길림임팔, 길림꽃옥수수, 장백산페나무꿀, 장백 산식용균, 장백산인삼 등 200 여가지 ‘길자호’ 특색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전 시 판매하였다.

전시에 참가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시범 제작, 시식, 선물, 홍보물 및 초 대장 발급 등 활동과 함께 라이브 방 송, 위챗 연결 등 방식으로 홍보와 협 력 상담 등 효과성을 높였다. 기업들 은 충분히 ‘길자호’ 특색농산물이 상 해 시민들의 높은 인정을 받았다고 표

했으며 아울러 많은 판매상, 대리상과 접속해 협력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표했다.

매하구공급판매합작사리사회 주 임 리정염은 매하구공급판매그룹 사 업일군들을 인솔하여 조선족박장을 차려입고 ‘산후조리 계란’, ‘매하 우 주 임팔’ 등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였 다. 전시회 현장에서 상해시 장녕구 공급판매합작사와 협력 의향을 달성 하고 특산물을 사화구역 슈퍼마켓에 진렬했는데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매진되었다. 연변양광우농업과학기 술발전유한회사는 생방송실을 현장 에 설치해 두 BJ 가 조선족박장차림 으로 연변의 랑질 임팔을 홍보하였 는데 생방송 방문 시청객이 연인원 근 5 만명에 달했다… 장백산 인삼, 길림 꽃사슴 제품, 령지포자 분말, 동북대전병 등 ‘길자호’ 특산물은 상 해 시민들의 선호를 받았으며 일부 제품은 전시 당일로 매진되었다. 불 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전시 기간 온

오프라인 판매액은 50 여만원, 의 향성 주문은 83 건, 의향성 계약 금 액은 400 여만원, 현장 상담 접속 및 위챗 추가 구매상수는 425 명에 달했다.

전시회 기간에 길림성공급판매합 작사 관계자들은 항주시 림안구공급 판매합작사, 복건 남평, 안휘성 룽 안시 등 전시구역을 찾아가 전시회 에 참가한 기업 대표들과 교류를 진 행하고 ‘길자호’ 공급판매 특색농산 물을 소개한 동시에 그들을 오는 8 월에 소집되는 제 7 회 공급판매 특 색농산물 전시판매회, 공급판매기업 길림행 및 공급판매계통 구매상대회 에 초청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 을 받았다.

이번 전시회서 길림성공급판매합작 사는 조직위원회로부터 ‘최우수조직 상’을 받고 통화시 금강신월화업 등 10 개 기업 제품이 ‘금상’ 제품에 선정 되었다.

/ 길림일보

개인공사업체의 기업화 전환 승격을 추진해 새로운 활력 불러일으킨다

연변조선족자치주는 올해 들어 개 인공사업체를 기업으로 전환 승격시 키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. 1월부터 4월까지 전 주적으로 신 규 기업화 전환 승격 기업이 170 호로 지난 동기보다 14.86% 증가했다. 그 중 98.24%로 167 호가 회사제 기업 으로 승격되었다.

연변은 ‘e 통합서비스계통’에 의 탁하여 개인공사업체의 기업화 전

환과 승격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여 이미 1,841 호의 개인공사업 체를 전환 발전 대상 및 육성 대상 으로 세분화 등록했다. 그중 중점 육성 대상이 912 호, 인도 육성 대 상이 717 호, 산업 육성 대상이 212 호이다.

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 변은 이미 기업 설립 등록 1 일 완료 기제를 실시하여 기업 등록 설립 소

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.

동시에 새로 기업화 전환 승격을 실현한 기업을 위하여 무료로 공인 을 제작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기업을 위해 공인 제작 비용 7 만 6,500 원을 절약해주고 전환 승격한 기업이 순 향, 장대해지도록 후속 쉼시를 적 극 강화하여 지금까지 자금 29.6 만 원을 보조해주었다.

/ 길림일보



매하구, 특색산업 강화하여 향촌 진흥에 능력 부여

매하구 특색농업산업 현장을 가본다

매하구시는 향촌산업의 전반 사슬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농산물 가공 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향촌 특색산업 을 우수하고도 탁월하게, 강하고도 크게 육성시키고 있다. 농업 공급촉 구조적 개혁 추진을 돌파구로, 농업 의 특색발전과 농산물의 품질 안전보 장을 중점으로, 농업의 효익 증대, 농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‘품질흥 농’, ‘특색발전’, ‘효익우선’을 견지하 고 생산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록 색, 량질, 고효과성 특색농업을 대대 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.

농업산업구조 최적화와 농업농촌 발전 ‘3 년 난관돌파’전으로 중약초 재배, 하우스경제, 축목양식업, 레 저관광농업, 식용균 재배, 록우미 (绿优米) 생산, 견과류 가공 등 7 대 산업을 장대시키고 산업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 점유율, 영향력이 높은 일련의 농업기업과 특색농산물 브랜 드를 육성하였으며 량식가공, 견과 류 가공, 중약재 가공, 가금축산물 가공 4 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 는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다.

올해 전 시 량곡 파종면적은 163.6 만무인데 그중 록우미 (绿优米) 42.3만무, 량질 옥수수 116만무, 고 출유 콩 4.3만무, 옥수수 산업화 시 범면적 2만무, 콩 산업화 시범면적 0.1만무, 공예작물 면적 4.5만무를 락착하였다. 프락경제 발전을 다그 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촌 및 전 문진 구축을 위주로 향촌 진흥 ‘십백 천만’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기초상 에서 농민들이 프락을 담체로 인지 시작하여 남새, 목이버섯, 과수나무 등 재배업을 발전시키도록 인도하고 있다.

매하구시의 몇몇 특색농업산업 현 장을 가본다.

특색항목이 착지해 꽃피는 길락 향: 지난해 꽃옥수수를 재배했던 400 무 기지에 올해는 시공농상그룹, 우농길서 (길림) 농업관리유한회사 3자 합작 방식으로 무당 3,500 원을 투입해 주로 노란살 ‘황금’ 감자 및 맥켄 (麦肯) 생산을 시작했는데 8 월이면 무당 순수의 1,300 원을 전망 한다.

하우스 공예작물 재배를 목표로 지 난해말부터 113 무 기지에 151 동 의 하우스를 건설했다. 올해 60 만원 투입으로 53 동의 하우스에 ‘딸기도 마도’를 재배, 이미 북경, 상해, 심양, 장춘, 할빈 등 도시 대형 상가 와 도매 의향을 체결해 순수의 60 만원 이상을 전망한다. 한편 기지는 연인원 3,000 명 되는 농민에게 일거 리를 제공한다. 길락향당위 서기 배 향동은 “계관산 특색관광자원에 의 탁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채집 체험 및 단체 구매 등 특색농산물 판 매 방식을 혁신하고 도매, 소매 병진 및 온·오프라인 통합 홍보 판매를 추진하여 특색브랜드를 형성해갈 것 ”이라고 밝혔다.

국가급 농업산업강진 산성진: 기온차 등 표고있는 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보흥촌에서는 2020 년에 자금 4,000 만원을 유치해 현대화 식용균 재배 하우스를 건설 하여 표고버섯, 곰보버섯, 작송이버섯 등 희귀 균종 재배업을 발전시키 고 있다. 재배기술원을 초빙해 재배 호에 무료로 기술지도를 제공하면서 버섯재배합작사를 설립했는데 오늘 날 합작사는 하우스 100 동에 170 만 개의 균봉 생산능력을 구비, 200 명 의 취업이 이끌면서 전국적으로도 비 교적 큰 곰보버섯 (羊肚菌) 비철 생 산기지로 발전했다. 16 동 하우스의 기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술원 류 파 부부는 “합작사는 겨울에 균종을 생산하고 여름에 버섯을 키우는데 일

거리가 떨어지지 않아 린근 촌민들의 벌이기도 좋다. 합작사 하나가 한개 촌 의 사람들을 잘살게 한다.”고 말한다. 오늘날의 산성진은 균종 연구 개발, 버섯 생산, 식품 가공, 판매를 아우 르는, 년간 생산액이 2000 만원에 달 하는 국가급 농업산업강진, 성급 특 색표고버섯진으로 되었다.

지성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기지 와 리로향: 리로향에 자리한 매하구 시지성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현대화 시범구의 750 무 하우스기지, 58 동 의 하우스에서 미니호박, 딸기, 앵 두, 포도, 도마도, 오이 등 40 여가 지 남새와 과일이 사철 순환 출하된 다. 기지의 유기 남새와 과일은 품질 이 좋아 시민들의 선호를 받고 있으 며 장춘, 할빈 등 도시로도 잘 나가 고 있다. 회사는 계속하여 2,000 평 방메터 되는 해빛온실을 확건해 채집 체험, 교학연구에 사용할 예정이라 한다. 지성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현 대화시범구는 사육업에서도 발전을 가져와 지금 200 마리 시멘탈 소를 키우고 있는데 주변 촌민 70 여명의 수입 증대를 돕고 있다.

한편 리로향에는 견과류 가공기업 이 11 가구 있는데 1년에 잿 가공생 산액 3 억원, 순수의 600 만원을 올리 고 있고 민박 경영호가 32 가구 있어 년 관광객 접대 규모가 10 만명에 달 한다. 리로향은 계속하여 매하구시 전역관광 우세에 의탁해 전통 향촌레 저관광, 체험채집관광에서 회의, 상 무, 레저 및 향촌 민박 등 신흥 관광 업태를 넓혀 제 3 산업을 발전시킬 방 침이라고 호가청 부향장은 소개한다.

고품질 ‘1 촌 1 품’을 구축하는 흑 산두진: 흑산두진에는 현재 242 무 비닐하우스기지에 450 동의 하우스 가 있는데 온실하우스가 102 무에 98 동, 비닐하우스가 140 무에 352 동 된다. 321 개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보산촌은 주로 비철 남새, 과일 품종을 재배하고 프락경제를 시범하 는 단지로 설계해 고품질 ‘1 촌 1 품’ 을 구축하고 있다. 단결촌 생태원의 98 동의 온실하우스에서는 딸기, 앵 두, 복숭아, 참외, 오이 등이 한창 철을 맞이해 수십명 로동자들이 바빠 돌아서 있다. 이 생태원은 매하구 시에서 제일 큰 효소딸기와 앵두 재 배기지로서 관광, 채집 체험을 일체 화한 산업단지로 구축되고 있으며 총 150 여명 촌민들을 이끌고 있다. 생 태원의 책임자인 30 대의 귀향창업자 단장은 “지난해 11 월부터 올여름까 지 생태원은 순수입 100 여만원을 올 린 동시에 농민들의 수입 증대도 이 껴었다.”고 소개한다.

하우스경제를 돌파구로 흑산두진 에서는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전력으 로 특색농업산업 프로젝트를 구축하 고 있다. 버섯향 넘치는 쌍흥진: 쌍흥진에 6만평방메터 부지에 6,000 평방메터 되는 건물을 세워 선진적인 액체 접 균 기술로 년간 200 만개의 목이버섯 균주머니를 생산하는 합작사가 있는 데 바로 매하구시신성목이버섯재배 합작사이다. 합작사는 이미 우리 성 의 가장 선진적인 버섯균주머니 생산 기지로 부상했으며 쌍흥진의 선두기 업, 매하구시의 중점 선두기업으로 되었다. 이 합작사에서 목이버섯 의 버들송이버섯, 느타리버섯류, 령 지 등 식용균을 생산하고 있다. 8 년 간의 발전으로 합작사는 이미 산업 규모를 형성했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 었으며 ‘기업 + 촌집체 + 농가’의 합 작경영 모식을 형성했다. 합작사의 업무는 이미 매하구시 주변 도시 및 향진으로 확대되어 165 호 농가와 12 개의 행정촌을 이끌어 산업 프로젝트 의 인솔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.

합작사에서 그간 쌍흥촌, 경승촌과 촌민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은 144 만 원이다. 합작사는 “향후 3 년 목이버섯 생산 표준체계 건설을 다그쳐 목이버섯의 시장 부가가치, 시장 경쟁 력과 종합 효과성을 높이며 균농 및 당시 백성에게 보다 많은 경제수익을 돌릴 것”이라고 한다.

한편 올해 쌍흥진은 진, 촌 집체에서 재배하는 랑질 버가 800 무 되며 400 가구에서 총 280 무의 프락경제 시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사과배동산 흥매진: 흥매진은 백 석구풍경구를 위주로 사과배, 남구 배, 향수배 등 배나무와 자두, 사과 등 과수원 부지가 총 3,000 여무로 확 장되었는데 다수확 면적이 1,100 무 로 년간 400 만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다. 그중 20 여년 경영해온 장수민 네 ‘형제과수원’ 및 그들의 영향하에 10 여가구가 나서서 경영하는 과수원 이 1,100 무 넘는다. 흥매진은 해마 다 배꽃철이면 백석구촌에서 배꽃축 제를 거행해 팔방의 관광객을 맞이하 고 있으며 과일 채집철이면 채집 체 협 관광객을 맞이해 농업자원과 농 업경관이 충분히 리용되고 있다. 이 미 5 기를 이어온 흥매진의 ‘배꽃축 제’는 동북 농경문화의 대표적 명절로 자리매김되면서 주변 농가락과 진의 경제성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.

관광객이 많아지자 장수민은 현유 절대 능력의 기초에서 과원에 ‘오두 막’, 민박시설 및 캠핑시설, 왕홍 거동 교 (吊桥) 와 산책로 등을 증설하고 주변의 저수지 낚시터와도 연합할 것 을 구상하고 있으며 백석촌에서는 80 만원을 투자해 과일포가공공장을 건 설할 타산이라고 한다. 과농을 도와 과일포 가공으로 겨울철 과일 저장 환 절에서의 소모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 로 과농의 수입 증대를 돕고져 한다.

흥매진에서는 향촌관광을 더한층 발전시키고 특유의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지를 쟁 취해 기초시설을 개선하고 도로와 부대시설, 민박, 봉사 등 여러 방면 으로부터 관광객의 체험을 향상시키 고 있다.

‘향촌 진흥 실천도사’와 록색동 산: 서광진에는 소문난 생태원이 있 다. 부지 100 무에 온실하우스 30 동 을 경영하고 있는 생태원은 주변 농 민 60 명을 이끌고 있다. 생태원의 책임자 견신선은 2014 년부터 자체 로 효소를 만들어 미생물비료로 토 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 록색, 건강 농산물 생산을 고집해오고 있다. 오 늘날 포도나무 6,000 그루, 복숭아나 무 1,000 그루, 체리나무 2,000 그루, 자두나무 1 만그루, ‘딸기도마도’ 1.5 만주에 참외, 산나물, 딸기, 조숙옥 수수, 분재남새… 를 경영하고 있는 이 생태원은 명실상부한 록색동산이 되어 철따라 고품질의 과일, 남새를 출하해 소비자들의 선호와 공정을 받 고 있다. 견신선은 주변 촌민들을 이끌기 위해 레보리남새재배전업합 작사를 설립하여 합작사 성원 25 가 구와 리의 원인을 실현하였는가 하면 성내의 10 여개 합작사와 연합하여 공동히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록 색 건강 과일, 남새 판매망도 형성하 였다. 지금은 또 주동적으로 매하구 시 전역관광에 융합해 여러가지 농사 체험활동을 거행하면서 레저관광산 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. 최근 5 년래 그가 접대한 농민강습생만 해 도 연인원 5 만명이 된다. 바로 5 월 에 그는 우리 성의 ‘향촌 진흥 실천도 사 (导师)’에 당선되었다. 그는 “더 많은 이들을 이끌어 특색농업을 발 전시키고 공동 치부하여 향촌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.”고 말 한다. / 길림일보